

허사 *There*구문에서의 병합과 이동*

주 치 운**

차 례

1. 서론
2. 병합, 일치와 이동
3. 병합과 이동의 재해석
4. 이동의 국부성과 동인분석
5. 대안 및 결론

1. 서론

Chomsky(1998)의 최소주의 이론에서 인간언어연산(C_{HL})체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간주되어 온 병합(Merge), 일치(Agree) 및 이동(Move)의 개념과 정의는 다양한 구문분석에 개념적이고 경험적으로 핵심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활용되어왔다. Chomsky(1998)는 구문형성에서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고려할 때 병합이 이동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는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Merge over Move)”를 주장하고, 이동은 최후수단(Last Resort)로서 이동되는 요소가 비 해석성 자질(uninterpretable features)을 지닐 경우에 이동이 활성화 된다는 활성화 조건(Activation Condition)을 바탕으로 이러한 자질들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일치 역시 자질점검을 위한 운용이지만 이동되는 요소의 자질점검을 위한 이동과는 달리, 표적(target)의 비 해석성 자질들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동은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인하공업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인하공업전문대학

EPP자질에 의해 유도되는 특성으로 간주하고 일치는 이동의 한 구성요소로 간주한다.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Chomsky(1998)의 인간언어연산체계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구문분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hima(2000)는 Chomsky(1998)의 병합이 이동보다 선호된다는 “이동대비병합우선원리”에 대한 개념적이고 경험적인 반대논거를 제시하여, 오히려 이동이 병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병합대비이동우선원리(Move over Merge)”를 주장한다. Bošković(2007)는 EPP자질점검으로서 유발되는 이동의 정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연쇄 순환이동에서 중간핵(intermediate heads)의 결여성(defectiveness), EPP 자질특성 및 국부성(locality)과 관련한 국면(phase)의 개념에 대한 Chomsky(1998)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msky(1988)의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Shima(2000)과 Bošković(2007)의 분석을 살펴보고, 그들의 이론적 장점을 소개하고, 특히 허사 *there*구문에 대한 수정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2장에서는 Chomsky(1988)의 통사운영상의 기본개념과 특성, 허사 *there*구문의 통사운용상의 적용, 그리고 EPP자질 속성과 “이동대비병합우선원리”에 대한 분석을 점검한다. 3장에서는 Shima(2000)의 “병합대비이동우선원리”의 논거를 분석하고, 이 원리가 허사구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Shima(2000)의 분석을 검토한다. 4장에서는 Bošković(2007)의 생략구문에서 자질점검이론에 대한 분석과 중간핵의 결여성에 대한 그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한 허사구문의 분석을 검토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요약과 함께 허사 *there*구문에 대한 수정된 대안을 제시한다.

2. 병합(Merge), 일치(Agree)와 이동(Move)

1) Chomsky(1998)의 통사운용상의 기본개념 및 특성

Chomsky(1998)는 인간언어연산체계의 구성요소에 필수적인 세 가지 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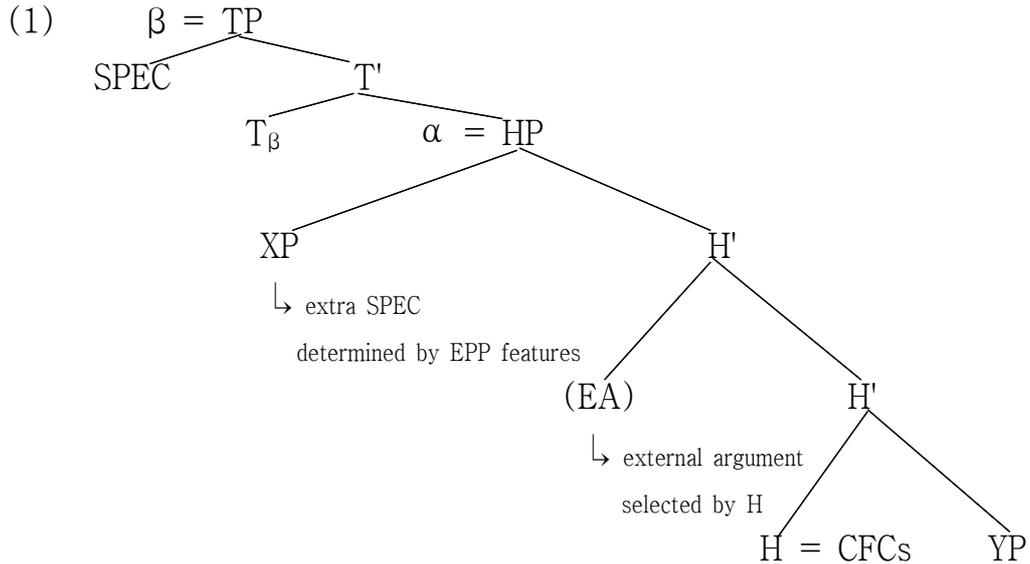
운용을 주장한다. 그 중 하나가 두 통사적 개체 (α , β)를 선택하여 새로운 K (α , β)를 구성하는 ‘병합’이고, 두 번째는 제한된 탐색 공간인 영역(domain) 내에서 어떤 어휘 항목 α 와 자질 F사이의 일치현상(Agreement) 및 격 점검(Case-checking)관계를 다루는 ‘일치’이다.¹⁾ 마지막으로 병합과 일치를 결합한 ‘이동’으로, 이 운용은 α 와 자질 F 사이의 일치현상을 확립하고 자질 F에 의해 결정된 구(phrase)인 P(F)를 α 가 핵인 투사 α P로 병합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P(F)는 α 의 지정어(specifier)가 되고, α 의 특성에 따라서 α 가 일치자질인 ϕ -자질(ϕ -feature)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의 이동을 논항이동(A-movement), 후자의 경우를 비 논항 이동(A'-movement)이라고 정의한다. 이동은 자질 F에 의해 결정되는 어떤 구 P(F)를 결정해야하는 추가적인 단계로서 ‘일반화 선도(generalized pied-piping)’를 요구하기 때문에 병합이나 일치, 심지어 병합과 일치의 결합보다도 더 복잡한 운용이라 주장하여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를 제안한다. 즉, 그는 보다 단순한 운용이 보다 복잡한 운용보다 더 선호된다고 주장하여 병합과 일치 또는 두 운용의 결합이 이동보다 우선되며, 이동은 다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최후조건으로서의 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

Chomsky(1998)는 상기 세 가지 운용을 야기하는 핵심기능범주(Core Functional Categories; CFCs)로 서법(force/mood)을 표현하는 보문소 C, 시제 및 사건(tense/event)구조를 나타내는 시제소T, 그리고 타동사 구문의 경동사(light verb)인 v 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모든 핵심기능범주는 ϕ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자질들은 비 해석성 자질로서 격-일치 및 이동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각각의 핵심기능범주들은 추가 지정어(extra SPEC)를 허용하여, C는 인상된 *wh*-구문, T는 표층주어(surface subject), v 는 목적어 인상으로 야기되는 최대투사 XP가 이동하여 도달하게 되는 ‘추가 지정어’를 허용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T와 관련하여 Chomsky는 그 특성을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EPP)에 바탕을 두며, C나 v 의 추가 지정어 허용도 EPP-자질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1) Chomsky(1988)는 일치는 병합과는 달리 언어 특수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2) Chomsky(1988)는 이동에 비해 일치는 지연원리(Procrastinate)에 대한 경험적 토대를 제공하고 다른 많은 중요한 결과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상술한 Chomsky(1998)의 핵심 기능범주들의 기본적인 구조적 특성을 표현하면 아래의 수형도로 나타 낼 수 있다.



상기 수형도에서 핵 H가 \bar{v} 라고 가정한다면,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 EA는 핵 \bar{v} 에 의해 선택된 외부논항이고 XP는 유인자인 핵 H의 EPP-자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Chomsky는 상기(1)의 핵심기능범주의 구조적 특성을 근거로 아래 (2)와 같은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 (i). If H is \bar{v}/C , XP is not introduced by pure Merge
- (ii). In the configuration [β T_β ... α], β minimal,
 - (a) if H is C, T_β is independent of α
 - (b) if H is \bar{v} , T_β agrees with EA, which may raise to SPEC- T_β though XP cannot
 - (c) if H is T_{def} , XP raises to SPEC- T_β if there is no closer candidate r for raising.

Chomsky(1998: 16)

(2)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면, 순수병합(pure Merge)은 이동이 아니기 때문

에 T_β 의 특성은 격, 일치현상이나 EPP와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 (2iib)에서, 외부논항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T_β 의 지정어 위치는 EPP를 충족하기위해 순수병합에 의해 채워지게 된다. (2ii)에서 β 는 핵심기능범주 중 하나인 H_β 가 핵 α 를 포함하는 최소 β (minimal β)로서 T 나 \bar{v}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2iic)의 경우는 ‘예외적 격 표시구문(ECM)’의 경우에 해당 될 수 있다. Chomsky (1998)는 (2i)에서 핵 H 가 \bar{v} 나 C 라면, XP 는 순수 병합에 의해 도입되지 않으며, 그 이유로 ‘의미역 위치에서 순수병합은 논항을 요구하고 또한 논항으로 제한 한다’라는 ‘의미역 이론 원리(Theta-theoretic Principle)’에 부분적으로 기인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미역 이론 원리에 의해 (2i)에서 순수병합은 허사로 한정해야하고, 마찬가지로 (2ii)에서 T_β 의 지정어 위치에 순수병합은 허사로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2) Chomsky(1998)의 허사 *there*의 통사운용상의 적용

Chomsky(1998)의 세 가지 필수 인간언어연산체계 구성요소의 개념과 핵심 기능범주들의 기본적인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2)의 정의에 의거하여 아래 제시된 허사 구문을 설명하고 있다.

- (3) a. there are questions about [α what C [T_P John read \bar{t}]]
- b. there is a possibility [α that proofs will be discovered]]
- (4) T_β [α [DO the book]] [[$_{SU}$ many students] [read \bar{t}_{DO}]]
- (5) a. $T_\beta-$ is likely [α there to be a proof discovered]
- a'. There is likely to be a proof discovered.
- b. T_β [$_{VP}$ I expected [α there to be a proof discovered]]
- b'. I expected there to be a proof discovered.

핵 H 가 C 이고 α 가 CP 인 (3)은 앞장의 (2iia)에 의거하여 α 는 주절의 $T(T_\beta)$ 의 기능적 특성과는 별개로 독립적이다. 즉, α 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α 내부에서 격-일치특성이 결정된다. (4)는 핵 H 가 \bar{v} 이고 직접목적

어 XP, 즉 α 가 인상된 목적어 인상 구문(Object Shift)으로서 (2iib)에 의해 V가 T_β 로 인상하여 주어인 외부논항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 이어서 외부논항은 T_β 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되어 “any students read-pl the book (never)”구문으로 형성 될 수 있거나, 또한 이동하지 않고 제 자리에 위치하여 EPP를 충족하기위해 허사가 병합되는 “there read-pl the book (never) many students”구문을 형성 할 수 있는 (2iib)의 두 가지 가능성을 설명 할 수 있다. H가 결여 시제소 T_{def} 이고 XP가 허사 there로서 α 가 TP인 (5)의 구문은 XP가 T_β 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 할 수 있는 (5a)와 중간에 위치한 보다 가까운 인상 후보인 t , 즉 I로 인해 허사 there이 인상 될 수 없는 (5b)의 구문은 (2iic)의 정의에 의해 각각 (5a')와 (5b')구문이 생성된다.

Chomsky(1998)는 세 가지 필수 인간언어연산체계의 구성요소에서 이동보다는 병합이 선호된다는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에 의해 상기 (5)의 예문과 아래 (6)의 예문의 문법성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여 허사구문을 분석하고 있다.

- (6) a. *there is likely [α a proof to be discovered]
 b. *I expect [α t to be a proof discovered]
 c. I expect [α a proof to be discovered]

즉, (6)의 문장을 형성하기위한 첫 번째 도출단계로 아래 (7)의 도출을 상정 할 수 있다. 여기서 T_α 는 ‘결여 시제소 (T_{def})’를 가리킨다.

- (7) [T_α [be a proof discovered]

Chomsky(1998)는 EPP자질로 인해 T_α 의 지정어 위치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허사 there의 병합이나 a proof의 이동으로 지정어 위치를 채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에 의해 이동보다는 병합이 선호됨으로 (5a,b)는 허용되지만 (6a)는 금지된다. (6b)는 비 논항 위치에 I가 병합된 후 주절로 인상되어 ‘의미역 위치에서 순수

병합은 논항을 요구하고, 또한 논항으로 제한 한다'라는 '의미역 이론 원리'을 위반하여 비문으로 판정된다. (6c)의 경우는 *a proof*이 T_α 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EPP를 충족하여 정문이 된다. 그러나 이동보다는 병합이 선호됨으로 허사 *there*이 병합된 (5b)구문과 병합보다 이동이 우선된 (6c)는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의 모순을 보여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homsky(1998)는 '시초 어휘 배열(initial lexical array)'에서 (5b)는 *there*를 포함하고 있고, 반면에 (6c)는 허사 *there*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상기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면, (6c)와 유사한 아래 수의적 지정어 위치(optional SPEC)를 지닌 '*seem*-유형의 동사구문'들도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판정 될 수 있다.

- (8) a. *me*(DAT) V [TP several people to be in the room]
 b. *there* V [TP several people to be in the room]

(8a)는 (6c)에서처럼. 내포문 TP에 *me*의 병합보다 이동이 적용된다. *me*는 그 이후에 *seem*-구문의 지정어 위치에 병합된 후 주절의 주어 위치로 인상된다. (8b)는 허사의 병합과 *several people*의 이동이 둘 다 일어나는 내포구가 복합 주어 구문(MSCs)일 경우에 생성 될 수 있다. 병합과 이동이 일어난 후 허사가 주절의 위치로 인상되어 (8b)가 생성된다.

결론적으로 Chomsky(1998)는 인간언어연산의 필수 구성요소인 병합, 일치 및 이동은 굴절어구의 비 해석성 자질에 기인된다고 주장한다. 즉, 이동되는 요소가 비 해석성 자질을 포함하면 이동이 유발되고, 표적은 비 해석성 자질을 지니면 순수한 일치가 일어난다. 이러한 연산은 반드시 복잡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단순한 운용이 복잡한 운용보다 우선되어야 함으로 이동보다는 어휘삽입과 같은 병합이 더 단순하여 병합이 우선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언어연산에서 탐색영역은 국부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연산은 어떠한 '예상적 적용(look-ahead)'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EPP자질 속성과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의 이론적 근거

Chomsky(1998)는 언어의 불완전한 요소로 어휘항목의 비해석성 자질과 이동특성을 들고 있다. 언어의 이동특성은 굴절어구의 비 해석성 자질에 의해 발생 한다고 주장하고 어휘 항목은 점점(interface)에서 해석될 수 있는 음(sound)과 의미(meaning)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조건(interpretability condition)에 의해 비 해석성 자질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 해석성 자질들이 격-일치 및 이동을 유발하고, 핵심 기능범주인 보문소 C, 시제소 T와 경동사 \bar{v} 는 비해석성 ϕ -자질³⁾을 보유 할 수 있으며, 특히 시제소 T와 경동사 \bar{v} 는 비해석성 ϕ -자질을 반드시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모든 기능 핵(C, T, \bar{v})은 비해석성 자질을 점검 및 삭제하기 위해 지정어 위치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하고 이러한 기능 핵의 비해석성 선택자질을 EPP 자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굴절어구의 지정어 위치를 채우는 동인은 비해석성 강성자질인 EPP 자질을 문자화 이전에 삭제하기 위해 명사구의 병합이나 이동에 의해 지정어 위치가 외현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이러한 모든 통사작용을 조화·일치(Match/Agree)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Chomsky(1998)는 이동특성 및 일치를 유발하는 굴절어구의 비 해석성 자질과 관련하여, 삭제되어야 하는 비해석성 자질을 지닌 굴절어구의 핵을 탐침(Probe)이라 부르고, 비 해석성 자질을 점검 해 줄 대상을 목표(Goal)라고 칭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제소 T의 비해석성 ϕ -자질을 점검 후 제거하기 위해 T가 탐침이 되어 자신의 ϕ -자질의 값을 정해 줄 목표를 탐색하게 된다. 이때 명사구의 해석성 ϕ -자질만으로는 탐침의 탐색대상이 될 수 없고 명사구의 비해석성 자질이 목표를 활성화하는 활성화요소(Activator)가 되어 목표탐색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 될 경우 조화·일치 작용이 일어나고 필요한 경우에 이동이 일어난다.

Chomsky(1998,2001)가 주장하는 허사 *there*의 자질 속성과 비 해석성

3) Chomsky(2000)는 ϕ -자질은 인칭([person]), 수([number])와 성([gender])으로 구성된 형식자질(formal features)로 간주 하고 있다.

EPP자질의 속성과약이 이동과 병합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명사구의 연속적 순환 이동이 일어나는 인상구문과 허사구문분석을 통해 그의 이론적 근거를 파악 할 수 있다.

- (9) a. A man_i T seems [_{t_i} T_{def} to be t_i in the garden]
 b. there_i T seems [_{t_i} T_{def} to be a man in the garden]

그는 (9)의 기능 핵인 결여 시제소 T_{def}는 완전한 자질 집합이 아닌 최소자질보어(minimal feature complement)만을 보유하고, 그것은 바로 인칭자질([person])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명사구는 T_{def}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 및 병합으로 T_{def}의 ϕ -set인 비 해석성 인칭자질을 삭제 할 수 있지만, 명사구 자신의 구조 격을 삭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9a)에서 명사구 *a man*은 T_{def}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T_{def}의 EPP 자질인 인칭자질을 점검하지만 *a man*의 구조 격 점검을 위해 주절의 기능핵 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격 점검과 일치 및 주절의 EPP자질을 점검하게 된다. Chomsky(1998,2001)는 허사 *there*은 인칭자질([person])만 보유하고 일반적인 명사구와 동일한 이동 및 유인 특성을 지닌다는 입장을 취한다. (9)에서 T_{def}는 자신의 EPP자질인 인칭자질을 삭제하기위해 *a man*의 이동이나 허사 *there*의 순수병합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배번집합(Numeration set)에 허사 *there*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에 의해 T_{def}의 지정어 위치에 허사 *there*이 병합되어 EPP 자질을 삭제하는 (9b)의 구문이 생성된다. Chomsky(1998, 2001)는 허사 *there*이 T_{def}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 할 때, 단일자질인 인칭자질 [person]만을 지닌 탐침 T_{def}는 지정어 위치에서 자질일치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지만, 목표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삭제는 탐침의 일부분이 아닌 완전한 ϕ -자질과 조화를 이룰 경우만 삭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T_{def}의 지정어 위치를 통한 주절의 지정어 위치까지 연속적 순환이동이 가능하게 되고, 주절 기능핵 T의 지정어 위치에 도달하여 EPP 자질을 삭제하고 제휴어와의 일치관계를 이루게 된다. 결국, EPP자질은 독자적인 속성을 지닌 자질이라기보다는 ϕ -집합(ϕ -set)의 한 구성 요소인 인칭([person])자질

에 의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즉, 확대투사효과는 EPP 자질의 독립적인 운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칭자질이 조화·일치작용이 일어날 때 부수적으로 삭제될 수 있는 운용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상술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Chomsky(1995, 1998)는 병합이 이동보다 선호되는 이유로 개념적인 논거와 경험적 논거를 동시에 제시한다. 개념적인 논거로서 이동은 세 가지 구문운용 단계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동은 어떤 어휘항목 α 와 어떤 자질 F사이에 일치를 이루어야한다. 다음으로 자질 F에 의해 결정된 P(F)를 선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P(F)를 α 가 핵으로 투사된 αP 로 병합한다. 이동은 세 가지 단계 중에 P(F)를 선택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합이나 일치 또는 두 운용의 결합보다도 더 복잡한 운용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단순한 운용이 보다 복잡한 운용보다 선호된다고 주장하여 병합이 이동보다 더 선호된다는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문장도출 과정이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의 경험적인 논거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 (10) a. There seems to be someone in the room.
 b. *There seems someone to be in the room.

Chomsky(1998)는 (10)의 구문은 인간언어연산체계에 의해 아래(11)의 도출단계를 거쳐서 생성된다고 주장한다.

- (11) a. [_{TP} to [_{VP} be someone in the room]]
 b. [_{TP} there to [_{VP} be someone in the room]]
 c. [_{TP} there T⁰ seems to [_{VP} be someone in the room]]

(11a)에서 다음단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연산은 결여 시제소 T_{def}의 지정어 위치를 채우는 것이다. 최초 배번집합에서 허사 *there*이 포함되었다고 가정 할 경우, T_{def}의 지정어 위치를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된다. 즉, *someone*을 인상하거나 *there*을 삽입해야한다. “이동 대비 병합우선원리”에 의

해 *there*삽입이 이루어져 (11b)의 도출로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주절의 시제 소 T^0 의 EPP점검을 위해 *there*이 T^0 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고 제휴어와 일치하는 (11c)의 도출로 이루어진다. (10b)는 (11a)의 도출단계에서 *there*의 병합이 아닌 *someone*의 이동으로 T_{def} 의 지정어를 채워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인간언어연산체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특성, EPP의 속성과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 병합과 이동의 재해석

1) Shima(2000)의 “병합대비 이동우선(Move over Merge) 원리”

이동운용은 구문운용에 있어서 P(F)를 선택하는 추가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합이나 일치 또는 두 운용의 결합보다도 더 복잡한 운용이어서 병합이 이동보다 선호된다는 Chomsky(1998)의 개념적 논거에 대해 Shima(2000)는 반대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는 병합 역시 이동의 운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추가도출단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최초 배번집합에서 어떤 어휘 항목을 선택하여 도출과정에 그것을 도입하는 Chomsky(1995:226)의 “선택(Select)” 운용이라는 추가단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1a)에서 TP의 지정어 위치에 허사 *there*을 병합하는 (11b)의 도출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운용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로 배번집합에서 허사 *there*을 선택하여 도출과정에 도입하고, 두 번째로 *there*과 TP를 병합한다. 마지막으로 *there*의 자질과 해당되는 T^0 의 자질과 일치와 관련된 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10b)에서 *someone*의 인상도 병합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운용이 개입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someone*의 자질과 해당되는 T^0 의 자질과의 일치관계가 연루되고, 두 번째로 *someone*의 선도(pied-piping)가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someone*과 TP의 병합이 필요하게 된다. Chomsky(1998)와는 달리, 결국 병합과 이동은 똑같이 도출 단계상 세 가지 운용이 적용됨으로 동일한 문법적 복잡성을 지닌다

고 주장한다.

Shima(2000)는 Chomsky(1998)에서 개념적 논거로 제시된 적용되는 통사 운용의 수의 관점에서 병합과 이동의 비교는 상술한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병합과 이동운용의 핵심적인 차이는 두 연산이 적용되는 구 구조(phrase structures)의 수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 병합은 서로 별개의 구 구조인 두 개체를 연결하여 새로운 개체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동은 단일 구 구조에 포함된 두 개체를 연결하여 새로운 개체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구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존재하는 구조뿐만 아니라 배번집합에서 어휘항목을 살펴보거나 독립된 통사개체(syntactic object)를 관찰하는 것 보다 이미 형성된 구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여, 오히려 이동이 병합보다도 더 개념적으로 선호되어야 한다는 Chomsky(1998)와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병합보다 이동이 선호된다는 이러한 개념적 근거와 함께 Shima(2000)는 ‘논항이동의 국부성(locality of A-movement)’과 ‘이동의 엄밀 순환(strict cyclicity)’ 특성과 관련하여 이동이 병합보다 선호되는 두 가지 경험적 논거를 제시한다.

병합보다 이동이 선호되어야 하는 첫 번째 경험적 근거로 ‘논항이동의 국부성’에서 그 근거를 제시한다. 아래 (12)의 ‘초 인상(superraising)구문’을 (13)의 도출과정을 통해 살펴보자.

(12) *John seems that it is likely t_{John} to win.

(13) a. [_{TP} T⁰ [_{VP} is likely John to win]]

b. [_{TP} it [_{T'} T⁰ [_{VP} is likely John to win]]]

c. [_{TP} T⁰ [_{VP} seems [_{CP} that it is likely John to win]]]

(13a)의 구조에서 TP의 지정어를 채우는 두 가지 방법으로 *it*의 삽입이나 *John*의 인상이 가능하다. Chomsky(1998)의 이동보다 병합이 우선된다는 원리에 의해 *it*이 삽입되어 (13b)가 생성된다. 마지막 운용으로 주절 TP의 지정어를 채워야한다. *it*의 격 자질은 이미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에서 점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it*의 ϕ -자질은 가시적(visible)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Chomsky(1998)의 ‘결여개입제약(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s: DIC)’⁴⁾에 의해 주절의 시제소 T^0 와 *John*과의 제휴(association)가 차단된다. 따라서 Chomsky(1998)는 (13)의 과정을 거쳐 (12)의 ‘초 인상구문’ 도출은 국부성 원리인 ‘결여개입제약’을 위배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hima(2000)는 Chomsky(1998)의 ‘결여개입제약(DIC)’으로 아래 구문의 도출을 설명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14) a. They seem to him to like John.
 b. [_{TP} T^0 [_{VP} [_V v^0 + seem [_{VP} [_{PP} to him] [_{V'} t_{seem} [_{TP} they [_{T'} to like John]]]]]]]]

(14a)의 도출을 위해 (14b)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주절 TP의 지정어 위치를 채워야 한다. 국부성을 근거로 주절의 T^0 에 가장 가까운 논항 *Him*은 전치사구 PP내에서 자신의 격 자질을 점검받아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하나 자신의 ϕ -자질은 가지적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결여개입제약(DIC)’에 의해 *him*이 주절의 T^0 와 *they*와의 제휴를 차단하여 (14a)가 비문으로 잘못 판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이유로 Shima(2000)는 Chomsky(1998)의 ‘결여개입제약’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 (15) [Spec, TP] can be filled only by a DP with structural Case.
 (TP의 지정어는 구조 격을 지닌 DP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Shima(2000:377))

(15)의 조건을 근거로 해서, 그는 (14b)에서 전치사 *to*는 *him*에게 내재격

4) Chomsky(1998:38-39)는 아래 (i)의 구조에서 국부성 조건과 관련하여 ‘결여개입제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i) $\alpha > \beta > r$

(i)에서 $>$ 는 성분통어(c-command)를 나타내고 β 와 r 가 탐침인 α 와 조화를 이룰 때, 조화효과(matching effect)가 차단되기 위해서는 β 가 움직이지 못해야한다.

(inherent Case)인 사격(oblique Case)을 할당하기 때문에 주절TP의 지정어 위치는 *him*이 아닌 주격을 보유한 *John*에 의해 채워짐으로 (14a)의 최종구문으로 도출이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Shima(2000)의 대안을 바탕으로 (13c)의 도출에 적용 할 경우, *it*은 내포문 TP의 지정어 위치에서 자신의 주격자질을 점점 받았기 때문에, (15)의 조건은 (13c)의 주절 TP의 지정어 위치는 *it*이 아닌 주격을 지닌 *John*이 채우도록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15)의 조건과 함께 “이동대비병합우선원리”를 적용하면 (12)의 ‘초 인상 구문’의 생성을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ima(2000)는, Chomsky(1998)의 주장과는 반대로, 병합보다는 이동이 선호되는 ‘병합대비 이동우선 (Move over Merge) 원리’를 제안하여 (12)와 같은 ‘초인상 구문’의 생성차단을 설명할 수 있고, 아래 (16)의 도출과정을 통해 이동이 병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6) a. [_{TP} T⁰ [_{VP} is likely John to win]]
 b. [_{TP} John T⁰ [_{VP} is likely t_{John} to win]]
 c. [_{TP} T⁰ seems [_{CP} that [_{TP} John [_T T⁰ is likely t_{John} to win]]]]
 d. [_{TP} it [_T T⁰ seems [_{CP} that John is likely t_{John} to win]]]

Shima(2000)는 병합보다 이동이 선호되기 때문에 (16a)에서 T⁰의 지정어 위치를 *it*의 병합이 아닌 *John*의 이동으로 (16b)가 도출된다. (16c)의 도출단계에서 주절의 T⁰의 지정어 위치는 (15)의 제약에 의해 *John*이 이미 내포문TP의 지정어 위치에서 자신의 주격을 점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되지 못함으로 *it*이 삽입되어 (16d)로 최종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Shima(2000)는 이동이 병합보다 선호되는 두 번째 경험적 논거로서 이동의 엄밀 순환 특성에서 찾고 있다.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표상층위(level of representation)로서 표층구조(S-structure)가 제거되었고, LF표상(LF representation)에서 적용되는 언어학적인 여과(filters)등이 필수출력조건(Bare Output Conditions: BOCs)을 위해 배제되었기 때문에 엄밀순환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엄밀순환도출의 관점에서 아래 (17)의 ‘주어조건위반

(Subject Condition Violation)’의 경우를 (18)의 도출과정을 통해 살펴보자.

(17) ??Who₂ did you say that [pictures of t₂]₁ were stolen t₁?

(18) a. [_{TP}[Pictures of who]₁ [_{T'} T⁰ [_{VP} were stolen t₁]]]

b. [_{CP} who₂ [_C C⁰<wh> [_{TP} you say [_{CP} that [_{TP}[pictures of t₂]₁ [_{T'} T⁰ [_{VP} were stolen t₁]]]]]]]]]

(18a)의 순환도출 과정에서 내포문의 목적어를 내포문TP의 지정어 위치로의 인상이 *Who*의 적출보다 선행된다. 그 후에 *Who*는 내포문의 주어에서 적출되어 장벽(barrier)⁵⁾을 넘어 상위로 이동함으로써 ‘적출영역조건(Condition on Extraction Domain: CED)’을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17)과 같은 문장의 도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밀순환이 필수적이다.

Shima(2000)는 엄밀순환 특성은 병합보다 이동이 우선된다는 자신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아래의 도출구조를 통해 설명한다.

(19) [_{TP} T⁰ [_{VP} were stolen [pictures of who]]]

(19)에서 도출의 연장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배변집합에서 C와 (19)의 TP를 병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포문의 목적어를 TP의 지정어 위치로 인상하는 것이다. 병합보다는 이동이 우선하는 원리에 의해 두 번째 가능성이 선택되어 (18a)의 도출이 생성된다. 따라서 병합대비 이동우선 원리는 *Who*의 적출로 ‘적출영역조건(CED)’을 위반한 (18)의 엄밀도출을 보장하게 된다. Shima(2000)는 이와 같이 병합보다 이동이 우선한다는 원리는 이동의 엄밀순환특성을 설명하는 경험적 논거라고 주장한다.

5) Chomsky & Lasnik(1993)에 의하면 ‘XP는 핵 H의 보어이거나 핵 H의 보어의 지정어 일 경우, 그 XP는 장벽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18a)에서 주어는 동사의 보어도 아니고 보어의 지정어 위치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벽으로 판명되고, *who*는 장벽을 넘어서 상위절로 인상되지 못한다.

2) Shima(2000)의 허사구문 분석

Shima(2000)의 허사구문분석에서는 Chomsky(1998)의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의 적용 없이 격을 근거로 한 아래의 주장⁶⁾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20) a. 허사 *there*은 격 자질을 지니며⁷⁾, 계사(copular) 뒤에 오는 DP는 계사에 의해 선택적으로 부분격(partitive Case)이 할당된다.
 b. 허사 *there*은 부분격을 지닌 DP의 자질에 의해 점검되어지는 형식 자질(formal features)를 지닌다.

(Shima(1995:382))

상기 (20)의 주장을 근거로 (10)에 나타난 두 구문의 문법성의 차이를 살펴보자. Shima(2000)는 (21)에 다시 표기된 (11)의 도출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21) a. [_{TP} to [_{VP} be someone in the room]]
 b. [_{TP} there to [_{VP} be someone in the room]]
 c. [_{TP} there T⁰ seems to [_{VP} be someone in the room]]

6) Shima(2000)는 (20a)은 Belletti(1988)과 Lasnik(1995a,b)의 부분격을 수용하였고 (20b)는 Lasnik(1995a,b)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7) Chomsky(1995:272)는 상기주장과는 달리 *there*는 격 자질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Chomsky주장의 근거는 아래의 비문에서 기인한다.

(i) *There seem that a lot of people are intelligent.

Chomsky는 주절 T⁰의 주격자질이 허사 *there*에 의해 점검되지 않음으로 LF에서 비 해석성 격 자질이 점검되지 않고 남게 되어 이 도출은 과탄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Shima(2000)는 허사 *there*의 자질을 점검 할 수 있는 형식자질을 포함하는 부분격을 지닌 어떤 DP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b)에 의해 (i)의 문장은 배제된다고 주장한다.

(21a)에서 *someone*은 (20a)의 주장에 의해 계사 *be*에 의해 부분격을 할당받는다. 이 부분격은 내재격(inherent Case)이기 때문에 (15)의 조건에 의해 TP의 지정어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20a)에 의거하여 배번집합에 포함된 주격 자질을 지닌 *there*이 유일한 점검자가 되어 TP의 지정어 위치를 채우게 되어 (21b)의 도출로 이어진다. 이어서 인간언어연산체계의 운용에 의해 (21c)의 도출을 거쳐 최종 (10a)의 문장이 생성된다. 반면에 비문인 (10b)은 (21a)에서 TP의 지정어 위치에 내재격을 지닌 *someone*이 인상되어 채워질 때 도출된다. 그러나 내재격을 지닌 *someone*의 인상으로 TP의 지정어 위치를 채우는 것은 상기 (15)의 조건을 위반함으로써 비문이 된다고 설명한다.

상기 주장을 근거로 Shima(2000)의 병합보다는 이동이 선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허사구문에 적용 할 경우 아래 (23)의 도출과정을 거쳐 (22a)의 구문을 도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Chomsky의 이동대비 병합우선 원리에 대한 반증을 제시한다.

- (22) a. Someone seems to be in the room.
- b. *There seems someone to be in the room.
- (23) a. [_{TP} to [_{VP} be someone in the room]]
- b. [_{TP} someone₁ [_{T'} to [_{VP} be t₁ in the room]]]
- c. [_{TP} T⁰ [_{VP} seems [_{TP} someone₁ [_{T'} to [_{VP} be t₁ in the room]]]]]

(23a)에서 *someone*이 주격을 지닌다면⁸⁾ (15)의 조건과 함께 병합보다 이동이 선호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의해 *someone*이 (23b)처럼 내포문 T⁰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되어야 하고, 이어서 도출의 다음단계로 (23c)에서 주절 TP의 지

8) Shima(2000)는 격과 관련하여 두 종류의 계사 *be*동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분격 자질을 할당하는 *be*와 격 자질을 배당하지 않는 *be*로 구분하고 있다.

- (i) There is a man in the room.
- (ii) A man is in the room.

(i)에서 T⁰의 주격은 허사 *there*에 의해 점검되고 *a man*은 계사 *is*에 의해 부분격이 할당된다. 반면에 (ii)에서 *a man*은 T⁰의 주격자질을 점검하는 주격자질을 지니며, 계사 *is*는 (i)에서 할당했던 부분격을 할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정어 위치를 채워야한다. *someone*이 구조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건(15)에 의해 주절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허사 *there*의 병합과 *someone*의 인상이라는 주절 TP의 지정어 위치를 채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이 경우 Shima(2000)는 병합보다는 이동이 우선된다는 원리에 의해 허사삽입보다는 인상에 의해 주절 TP의 지정어 위치를 채워야함으로 (22a)의 구문이 생성되고, 반면에 병합이 우선된 (22b)의 도출은 차단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Shima는 Chomsky와는 달리, 인간언어연산체계의 운용에서 오히려 이동이 병합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허사*there*의 특성 역시 Chomsky와는 달리 격 자질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병합보다는 이동이 선호될 경우 허사구문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4. 이동의 국부성과 동인 분석

1) Bošković(2007)의 생략구문에서 자질점검이론의 문제점 분석

최근 최소주의 이론에서 이동의 국부성은 자질점검과 연계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다. 일례로, Chomsky(1995)는 연쇄순환 이동의 경우에 각각의 연쇄연결(chain link)의 형성은 자질점검을 위한 최후수단을 충족해야만 한다. Chomsky(1998)에서도 이러한 분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동의 국부성과 관련한 그의 분석은 최소주의 이전의 한계교점(bounding node)의 개념과 유사한 국면(Phase)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최대투사 XP가 국면의 지정어 위치로 먼저 이동한 경우에만 그 국면을 벗어나서 이동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제약은 단지 어떤 국면의 핵과 지정어만이 그 국면을 벗어난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국면 불 침투 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PIC)’에 기인한다. 이러한 이동은 국면의 핵에 EPP자질 특성을 부여하여 핵의 지정어 위치를 채움으로서 충족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EPP자질 점검은 국면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을 유발하는 동인이 되고, 이 이동 이후에 국면의 지정어

위치에 이동된 요소만이 그 국면을 벗어난 위치로의 이동에 접근 가능하다는 ‘국면 불 침투 조건’을 통해 이동의 국부성을 주장한다.

Bošković(2007)는 EPP자질점검을 근거로 한 이동은 논항이동과 비 논항 이동에서 ‘예상적 적용’과 같은 문제점⁹⁾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여 이동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특히 연쇄이동에서의 ‘중간 지정어 위치 (Intermediate SPECs)’로의 이동은 자질점검과 관련이 없다는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생략(ellipsis)현상을 살펴보면, 기능 핵이 ‘지정어-핵 일치(SHA)’, 즉, 자질점검이 이루어질 때, 기능 핵은 자신의 보어의 생략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최소주의의 분석이다. 물론 Chomsky(1998)는 생략에 대한 ‘지정어-핵 일치(SHA)’요건을 EPP요건으로서 다시 표현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질점검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아래 (24)에서 시제소 I, 's, [+wh] C가 각각 ‘지정어-핵 일치’를 이루어 생략을 허가함을 볼 수 있다.

- (24) a. John liked Mary and [_{IP} Peter_i [_{I'} did ~~*t_i like Mary*~~]] too.
 b. John's talk about the economy was interesting but [_{DP} Bill [_{D'} 's ~~*talk about the economy*~~]] was boring.
 d. John met someone but I don't know [_{CP} who_i [_C C ~~*John met t_i*~~]].

그러나 Bošković(2007)는 중간핵(Intermediate head) C가 지정어-핵 일치를 이루더라도 자신의 IP보어의 생략을 허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예를 제시하여 자질점검으로서의 이동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 (25) a. *John met someone but I don't know who_i Peter said [_{CP} t_i [_C C/that ~~*John met t_i*~~]].
 b. *I know who Mary said C/that John met, but I don't know who_i Peter said [_{CP} t_i [_C C/that ~~*John met t_i*~~]].

9) ‘예상적 적용’에 대한 세부 문제점은 Bošković(2007:594-595)를 참조하기 바람.

(25)에서 CP의 중간 지정어는 C/*that*과 지정어-핵 일치관계를 이루어 생략을 허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상과는 달리 비문으로 판정된다. 또한 Bošković (2007)은 동사구 생략과 관련하여 통제구문과 예외적 격 표시 구문과의 문법성의 대조적 결과를 설명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자질점검 관점의 이동을 반박한다.

- (26) a. John was not sure he could leave, but he tried [_{IP} PRO_i [_Γ to *t_i* leave]].
 b. *John believed Mary to be available but I don't believe [_{AgroP} her_i [_{IP} t_i [_Γ to *be t_i available*]]].

통제구문인 (26a)에서 PRO의 영격(null Case)을 가정하면, PRO는 부정사 굴절 핵 I, 즉 *to*에 의해 영격이 점검됨으로 PRO는 *to*와 지정어-핵 일치관계를 이루어 생략이 허용되는 반면에, 목적어의 격 점검을 위해 일치소 Agro의 지정어 위치로 목적어가 외현적 이동을 하여 지정어-핵 일치관계를 이룬 (26b)의 예외적 격 표시 구문은 생략을 허가 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Bošković(2007)는 자질점검의 일환으로서 연쇄이동이 야기하는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쇄이동은 자질점검에 의해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연쇄연결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최소 연쇄 연결 원리(Minimize Chain Links Principle; MCLP)’를 수용하여 분석한다. 즉, 연쇄 순환 이동은 중간핵과의 자질점검과 관계없이 가능한 짧은 연쇄연결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2) Bošković(2007)의 중간핵의 결여성(defectiveness)에 대한 문제 제기

Chomsky(1998, 2001)는 연쇄 순환 이동을 자질점검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결여 핵(defective head)’의 개념을 채택한다. 즉, 활성화 조건에 의해 목표를 핵과의 일치 및 이동에 가시적으로 만드는 비 해석성 목표의 자질을 중간핵이 점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여 핵’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Chomsky

(1998, 2001)의 개념을 근거로 하여 Bošković(2007)는 아래 (27)의 중간핵 C가 결여 핵의 한 예라고 설명한다.

- (27) a. What_i do you think [_{CP} t_i that Mary bought t_i]?
 b. you think [_{CP} what_i that Mary bought t_i]
 Y(goal) X(probe)
 i_{wh} ~~u_{wh}~~ ----> i : interpretable F
 u_Q EPP ----> u : uninterpretable F

Chomsky의 분석에 의하면, (27)에서 탐침인 *that*과 비해석성 Q-자질을 지닌 목표인 *wh*-구와 자질점검을 위해 *what*이 내포문의 *that*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that*의 EPP자질과 [+wh]-자질을 점검한다. 그러나 Chomsky는 *wh*-구의 이동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내포문 C의 Q-자질을 *that*이 점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that*을 ‘결여 핵’으로 간주하여 *wh*-구는 계속해서 주절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과 일치를 위해 활성화 된다고 주장한다.¹⁰⁾ 반면에 Bošković (2007)는 연쇄순환 이동에 대한 ‘최소 연쇄 연결 원리(MCLP)’ 분석에서는 자질점검과 관련한 중간핵의 결여성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가능한 짧은 연쇄연결요건인 ‘최소 연쇄 연결 원리’에서는 중간핵은 자질점검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연쇄순환이동 동안에 중간핵이 자질점검과 무관하다면, 중간핵은 일치와 이동을 가시화하는 자신의 목표의 비 해석성 자질을 점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질점검과 연계한 중간핵의 결여성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는 탐침과 점검관계를 갖기 위

10) Chomsky(1998)의 분석에 따르면, C는 [+wh]-자질과 *wh*-구의 이동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Q-자질과 점검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 (i) I wonder What_i C Mary bought t_i.
 i_{wh} ~~u_{wh}~~
 u_Q ~~EPP~~
 (Bošković(2007: 599-(14)))

(i)에서처럼, C는 u_Q자질점검이 가능하지만 *that*은 u_Q자질점검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that*은 결여 핵이라고 주장한다.

해 목표를 활성화하는 목표의 비 해석성 자질들을 모든 탐침이 삭제한다는 점에서 Chomsky(1998)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점검과정을 설명하지만 자질점검과 관련한 중간핵의 결여개념은 제거되어야 하고 대안으로 ‘최소 연쇄 연결 원리’의 수용을 주장한다.

Bošković(2007)는 Chomsky(1998)의 인상구문에서 내포문의 굴절소 I도 (27)의 *that*과 마찬가지로 자질점검과 관련하여 결여 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28) *Mary_i seems [IP t_i to know t_i French].*

그는 연쇄 순환이동에 대한 ‘최소 연쇄 연결 원리’ 분석을 (27)의 *that*과 마찬가지로 인상구문의 중간핵 I에까지 확대 적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상구문의 중간핵 I는 자질점검과 관련이 없고 연쇄순환이동과정에서 각각의 연쇄 연결을 가능한 짧게 해야 한다는 ‘최소 연쇄 연결 원리’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비 논항이동과 관계있는 중간 핵 C와 논항이동과 연관하는 중간핵 I는 동일한 관점에서 취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연쇄순환이동에서 논항이동과 비 논항이동을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이론적 장점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Bošković(2007)는 Chomsky의 자질점검과 관련한 중간핵의 결여성 규정은 불필요하며 ‘최소 연쇄 연결 원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3) Bošković(2007)의 허사구문 분석

Bošković(2007)은 중간 위치에서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를 근거로 한 자질점검 분석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반증으로 허사구문을 들고 있다. 2장의 (10)의 허사구문과 (10)의 도출과정을 보여주는 (11)의 도출단계에서 중간 부정사 구문인 IP의 지정어 위치를 무엇인가가 채워서 중간핵에 부여된 EPP를 충족해야하는데, (10b)는 허사 *there*의 삽입보다는 *someone*이 인상되어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를 위반하여 비문이 된다고 Chomsky(1998)는 설명한다. Bošković(2007)은 이러한 Chomsky(1998)의 주장과는 달리 허사의 삽

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정명사구가 I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아래의 예문을 제시하여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9) There was a rumor that a man_i was t_i in the room.

그러나 Chomsky(1998)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국면은 자신만의 하위배번(subnumeration)을 지닌다는 ‘국면을 근거로 한 하위배번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다. 즉 (29)에서 내포문 CP는 하나의 국면으로서 허사 *there*이 그 국면의 하위배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허사삽입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Bošković(2007)은 Chomsky(1988)의 국면을 근거로 한 하위배번 개념 또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30) a. There has been a book_i put t_i on the table.

b. *There has been put a book on the table.

Chomsky(1998)의 국면의 정의에 의하면 수동 동사구(passive VP)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30a)는 전체가 하나의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따라서 (30a)에서 부정명사구가 이동하는 시점에 “이동 대비 병합우선원리”에 의해 허사 *there*이 삽입되어야 함으로, 오히려 정문인 (30a)에서처럼 부정명사구의 인상은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문인 (30b)의 예문이 문법적으로 판정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Bošković(2007)은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에 대한 Chomsky(1998)의 주장은 또한 “예상적 적용”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11) Chomsky(1998:20)에 의하면, CP와 $\bar{y}P$ 만이 국면이고 TP나 비대격(unaccusative) 동사구나 수동동사구는 국면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Lasnik(1995a,b)은 (30a)에서 부정명사구의 이동은 EPP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한다고 주장하지만 EPP자질 점검에 대한 문제점은 최근 최소주의 분석에서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0a)에서 부정명사구의 이동은 대격(accusative)점검을 위한 이동이라고 주장한다. EPP제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oo(2008)을 참조하길 바란다.

(31) Mary believes John_i to t_i know French.

(31)에서 내포문이 형성되는 시점에, 내포문의 EPP를 충족 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John*을 내포문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거나 *Mary*를 병합하는 것이다. Chomsky(1998)의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에 의해 *John*의 이동은 금지되고 *Mary*의 병합이 요구됨으로 (31)의 구문을 도출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Chomsky(1994)는 *Mary*를 내포문 IP의 지정어 위치에 삽입하는 도출은 궁극적으로 의미역 기준(θ -criterion)을 위반하여 방지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의미역 기준의 적용은 “예상적 적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Chomsky(1998)는 “예상적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논항은 단지 의미역 위치(θ -position)에만 병합된다는 조건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조건 역시 지나치게 잉여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Bošković(2007)은 주장한다.¹²⁾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는 폐기되어야하고 중간 굴절어구의 핵에 자질점검으로서 EPP자질을 폐기하면 2장의 (10b)의 비문법성도 쉽게 설명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내포문 IP의 지정어 위치로의 명사구의 이동은 점검되어야 할 자질이 없기 때문에 최후수단에 의해 금지된다. 결론적으로 Bošković(2007)은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의 폐기와 연쇄순환이동에서 중간 굴절어구로의 이동은 자질점검이 아닌 최소연쇄연결원리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표준이론에서는 연쇄이동이 중간 CPs의 지정어를 요구 할 경우에만 중간 CPs의 지정어가 생성되는 반면에, 중간 IPs의 핵 I는 언제나 지정어를 채워야 한다는 EPP 요건을 충족해야한다는 논항이동과 비 논항이동에 대한 서로 다른 구분을 상정하지만, Bošković(2007)은 이러한 구분의 제거를 주장하여 중간 CPs의 지정어와 중간IPs의 지정어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2) 이 조건은 **John seems that Peter likes Mary*와 같은 비문을 불필요하게 잉여적으로 배제한다. *John*의 존재는 이미 완전해석원리(Full Interpretation)를 위반하여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건 없이도 비문으로 판정됨으로 이 조건은 지나치게 잉여적이라고 Bošković(2007:601)은 주장한다.

- (32) a. What_i do you think [_{CP} t_i that John bought t_i]?
 b. You think [_{CP} that John bought a house].
 c. Someone_i is likely [_{IP} t_i to be t_i in the garden].
 d. There is likely [_{IP} to be someone in the garden].

그는 중간 핵 C나 중간 핵 I는 연쇄순환이동이 그들의 지정어를 요구 할 경우에
 에만 지정어 위치는 채워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워있는 채로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32a)는 *what*은 중간 C가 연쇄이동과정에서 지정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위치를 거쳐서 주절로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32c)는 중간핵 I가 연
 쇠이동과정에서 지정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간 IP의 지정어를 거쳐서 주절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32b)와 (32d)에서 중간핵 C와 I는 비워있는 채
 로 남게 된 경우를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한다. 결국 (32d)의 허사구문에서 허
 사 *there*은 중간 IP의 지정어 위치에 병합되어 주절의 위치로 이동 한 것이 아
 니라 허사 *there*은 표면위치(surface position)에서 생성된다는 “허사 불 이동
 가설(expletive-don't-move hypothesis)”을 주장한다.¹³⁾

“이동대비 병합우선 원리”의 문제점과 중간핵의 EPP자질 점검으로서의 연
 쇠이동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Bošković(2007)은 허사구문에 대한 새로운 분석
 을 시도한다. 그는 Belletti(1988)와 Lasnik(1995a,b)의 허사구문 분석을 수용
 하여, 허사 *there*은 격을 지니며 그것의 제휴어는 부분격을 갖는다고 주장한
 다. 부분격의 배당은 Shima(2000)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의적으로서, 아래
 (33b)는 주어 명사구가 주격점검을 위해 주절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부분
 격을 배당받지 않았으며, (33c)는 계사 *is*에 의해 부분격이 배당된다.

- (33) a. *_{[IP} Is someone in the garden].
 b. _{[IP} Someone is in the garden].

13) Bošković(2002)에서 전통적인 허사구문은 이동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허사는 표
 면위치에서 직접 생성된다는 “허사 불 이동 가설”을 주장했고, Bošković(2007)에서
 도 이러한 주장을 유지한다. “허사 불 이동 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는 불어의
 “경험자-차단 효과(experiencer-blocking effect)”와 관련되어 설명한 Bošković
 (2007; 603)의 (27, 28, 29)의 예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c. [_{IP} There is someone in the garden]

(33a)의 경우 비한정 명사(indefinite noun)인 *someone*이 계사 *is*에 의해 부분격을 할당받을 수 있는 구조이지만, Bošković(2007)은 부분격은 허사 *there*이 존재 할 때만 배당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부분격은 한정명사구 DPs가 아닌, 단지 명사구 NPs에 배당된다고 주장하여 존재구문에서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를 동시에 설명한다. Bošković(2007)은 표준이론 가설을 수용하여 전통적인 NP는 반드시 DP 층위(DP layer)를 항상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33c)의 경우에, *there*의 제휴어는 부분격을 배당받음으로 반드시 NP이어야 한다. 즉, 허사-제휴어 쌍(expletive-associate pair)은 복합 DP이고 *there*은 DP층위이며 제휴어는 NP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¹⁴⁾ 결국 부분격의 선택은 허사 *there*이 존재 할 경우에만 부여됨으로 (33c)에서 *there*은 EPP자질 점검과 무관하며 허사는 표면위치에서 삽입된다고 주장한다.

4. 대안 및 결론

Chomsky(1995, 1988, 2001)의 EPP자질점검으로서의 이동분석과 이동보다는 병합이 우선된다는 “이동대비 병합 우선 원리”는 다양한 구문에서 이론적 결점이 발견된다. Shima(2000)는 “이동대비 병합우선원리”와 관련하여 Chomsky가 개념적 논거로서 주장하는 인간언어연산체계에서 도출단계의 운용 수만을 고려 할 경우 병합은 이동과 동일한 도출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제시하며 Chomsky의 병합을 선호하는 개념적 논거를 반박한다. 또한 논항이동의 국부성과 이동의 엄밀 순환 특성을 근거로 한 Chomsky의 경험적 논거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을 입증하고, 오히려 이동이 병합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험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Bošković(2007)은 EPP자질 점

14) Bošković(2007:628, fn67)은 D와 NP사이에 어떤 종류의 점검이 존재해야한다면, *there*과 제휴어는 일치관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검을 근거로 한 Chomsky의 이동분석은 논항이동과 비 논항이동에서 “예상적 적용”의 문제점을 야기하며, 중간핵의 결여성과 관련된 Chomsky의 ‘결여 핵’의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 Chomsky의 국면과 배번집합, 하위배번집합, 그리고 “국면 불 침투 조건”과 연계한 “이동대비 병합 선 원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Shima(2000)와 Bošković(2007)의 분석을 수용하여 병합이 이동보다 선호된다는 Chomsky의 분석을 폐기해야하고 또한 중간핵에 EPP자질 점검을 위한 이동의 개념도 Bošković(2007)의 연쇄순환이동의 “최소 연쇄 연결 원리”로 대체해야한다는 입장을 수용한다. 따라서 Chomsky의 분석에 대해 Shima(2000)와 Bošković(2007)의 문제제기와 허사구문에 대한 분석을 수용 및 수정하여 허사 *there*과 허사구문에 대한 통사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33) a. 허사 *there*은 주격을 보유하고 주격을 점검하기 위해 삽입된다.
- b. 허사 *there*은 부분격을 지닌 비한정 명사구 제휴어와 복합DP를 구성하여 일치룰 이루는 접사(Clitic)적 특성을 지닌다.
- c. 허사 *there*은 이동하지 않고 표면위치에서 생성된다.
- d. 제휴어인 비한정 명사구는 배번집합에 포함된 허사*there*이 표면위치에 생성 될 경우에만 부분격을 배당받는다.

상기 정의에 의해 배번집합에 포함된 허사 *there*은 자신의 비 해석성 격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표면위치에서 생성되어 비한정 명사구와 일치를 이룬다. 비한정 명사구에 부여되는 부분격은 독자적으로 할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배번집합에서 접사적 특성을 지닌 허사 *there*이 포함되어 표면구조에 생성 될 경우에만 할당된다. 배번집합에 허사 *there*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제휴어인 비한정 명사구는 부분격을 배당하지 못하며 도출의 과탄을 막기 위해 구조적 점검을 위해 이동되어야 한다. (33d)의 조건은 Belletti(1988)와 Lasnik(1995a,b)의 분석을 근거로 한 Shima(2000)와 Bošković(2007)의 계사에 의한 수의적 부분격 할당이라는 규정 없이도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Shima(2000)와 Bošković(2007)의 분석을 통해 Chomsky(1998,2001)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함과 아울러 Shima(2000)와 Bošković(2007)의 수위적 부분격을 구조적 관점으로 통합하여 허사구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 용 문 헌

- Belletti, Adriana.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 1988. pp.1-34.
- Bošković, Zeljko. "A-movement and the EPP." *Syntax* 5. pp 167-218.
- Bošković, Zeljko. "On the Locality and Motivation of Move and Agree: An Even More Minimal Theory." *Linguistic Inquiry* 38. 2007. pp.589-644.
- Chomsky, Noam. "Bare Phrase Structur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5*. Cambridge, MA. 1994.
- Chomsky, Noam. "Categories and transformations," In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1995. pp.219-394.
- Chomsky, Noam.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No 15*. Cambridge, MA. 1998.
- Chomsky, Noam.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 by Michael Kenstowicz, Cambridge, Mass.: MIT Press. 2001. pp. 1-52.
- Chomsky, Noam, and Howard Lasnik. "The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Berlin: Walt de Gruyter. 1993. pp.506-569.
- Joo, Chi.-Woon. "Elimination of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Alternative Analyses." *Journal of British & American Studies* No. 19. 2008. pp.127-151.
- Lasnik, Howard.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1995a. pp.615-633.
- Lasnik, Howard. "Last Resort." In *Minimalism and linguistic theory*, Tokyo: Hituzi Syobo. 1995b. pp. 1-32.
- Shima, Etsuro. "A Preference for Move over Merge." *Linguistic Inquiry* 31. 2000. pp.375-385.

Abstract

Merge and Move in the expletive *There* constructions

Chiwoon Joo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Chomsky's (1998, 2001) claim that Merge is preferred over Move both conceptually and empirically and his feature-checking motivation in successive-cyclic movement. However, contrary to Chomsky's claim, Shima(2000) proposes that Move is selected over Merge in both conceptual and empirical respects and Bošković(2007) suggests that there is no feature checking in intermediate positions of successive-cyclic movement. In this article, following and revising Shima's(2007) and Bošković's(2007) analyses, I try to propose a revised analysis on the expletive *There* constructions in English. Put it briefly, the expletive *There* has a Nominative Case and is introduced into a derivation for the Nominative Case checking. And *There* has a clitic property, so that it must be generated only in the presence of the indefinite NP associate. And it is also verified that *There* should be generated in the surface position not by Move, but by Merge. The indefinite NP as an associate could bear Partitive Case only when the expletive *There* included in the numeration set is generated in the surface position. In case the expletive *There* is not included in the numeration set, the associate could not be assigned Partitive Case. In that case, the associate should move to the position where a structural Case could be checked.

Key Words: Merge, Move, Phase, numeration set,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 병합, 이동, 국면, 배번집합, 국면 불 침투 조건

논문접수일: 2009. 10. 28

심사완료일: 2009. 11. 8

게재확정일: 2009. 12. 14

이름: 주치운

소속: 인하공업전문대학 호텔경영과

주소: 402-752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

이메일: cwjoo@inhatc.ac.kr

